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 및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Mother Goodness-of-fit,
Mothers' Empathy and Parenting Stress*

최미경(Mi-Kyung Choi)¹⁾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mother 'goodness-of-fit', mothers' empathy and parenting stress. A sample of 324 mothers of 5th grad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thers answered questionnaires on the levels of their parenting stress, empathy and child-mother 'goodness-of-fit'.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s well as multiple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Child-mother 'goodness-of-fit', as well as mothers' empathy was a predictor for parenting stress;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were found between child-mother 'goodness-of-fit' and the mothers' empathy on parenting stress. These results indicate the need for possible intervention in relation to mothers' empathy levels and to reduce parenting stress.

Key Words :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조화적합성(goodness of fit), 공감능력(empathy).

I. 서 론

부모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인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인 기쁨을 주는 동시에 끊임없는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일로 스트레스를 야기

하기도 한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일상적 스트레스인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Abidin, 1990)는 부모 자신의 복지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도 관련이 크다는 점(Abidin, 1992)에서 관심이 요

* 이 논문은 2010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지원을 받았음.

¹⁾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Mi-Kyung Choi, Department of Child and Humand Development,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132-714, Korea
E-mail : dmkchoi@duksung.ac.kr

구된다. 양육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이나 특성, 부모 자신과 배우자의 특성, 주변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다(Dumas & Lafreniere, 1993).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대개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가지고 있고, 부모 스스로도 까다로운 경향이 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부모의 경우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기 쉬우며(박응임, 1995), 온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이고(Slack, Holl, McDaniel, Yoo, & Bolger, 2004), 과도한 훈육과 낮은 기대, 비양육적인 행동 등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다(송주미, 1992; Evans, Boxhill, Pinkava, & Met, 2008; Huth-Bocks & Hughes, 2008). 이렇게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가정에서 자란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학교에서의 적응도 떨어져 사회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나타내거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도 보고된 바 있다(Huth-Bocks & Hughes, 2008). 반면,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부모의 자녀는 대개 순한 기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 스스로도 보다 온순한 성격특성을 지니고 있고 양육행동 시에 애정, 합리적 지도를 많이 사용하고, 권위주의적인 통제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미숙·문혁준, 2005; 박성연·전춘애·한세영, 1996; 정문자·신숙재, 1998).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학교에서의 적응력도 높았다(Deater-Deckard, 2005; Huth-Bocks & Hughes, 2008). 이와 같이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 부모의 기질, 성격적 특성 및 가정환경과 관련이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과 교육기관에서의 적응력과의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그 관련변인을 탐색하는 지속적인 학문

적 노력이 요구된다.

양육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 아동과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 관련성을 발견하고자 시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의 특성, 환경적 요구 및 기대감이 유기체 자신의 능력, 동기 및 행동 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조화적합성(Chess & Thomas, 1999)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깊다는 몇몇 연구가 보고되었다(정향미·안민순, 2009; 한세영·박성연, 1994). 즉, 아동의 기질은 특정한 환경에 영향을 주며, 동시에 그를 둘러싼 환경 내의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 판단, 태도 및 행동 등의 사회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아동의 기질 특성이 부모 등 아동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기대하는 기질 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Lerner, 1983). 이는 유기체와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아동은 최적의 발달이 가능하며(Thomas & Chess, 1977), 아동의 기질 자체보다 어머니와의 기질적 조화가 아동의 발달에 더욱 중요한 변인(Buss & Plomin, 1984)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모와 아동 사이의 조화적합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부모의 기대와 아동의 행동변화로 바뀔 수 있는 것으로(Chess & Thomas, 1999), 부모가 아동의 기질을 이해하고 적절히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긍정적인 조화적합성을 이룰 수 있다. 실제로 부모와 아동의 사회성과 활동성이 모두 높은 경우, 부모는 자신과 유사한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여 자녀와 조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만족스러운 부모자녀관계를 이루었다(Buss & Plomin, 1984). 국내 연구도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이 조화로울수록 어머니가 아동에게 애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정향미·안민순, 2009). 그러나,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

구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와 아동이 나타내는 기질이 조화를 이루는지를 살펴보는 조화적합성을 조사하여, 이러한 조화적합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들 가운데 아동의 발달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모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자녀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은 경험적 연구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으며, Belsky와 Pensky(1990)는 어머니의 정서 상태와 자녀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우울상태의 어머니들은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며 양육스트레스도 더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성격변인 가운데 타인의 관점에서 타인이 느끼고 보는 것을 추론하는 것으로(Gordon, 2003), 상대방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그의 감정과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말이나 행동으로 전달해 주는 공감능력(empathy)(박혜원, 2002)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감능력에는 타인의 관점이나 역할을 수용하는 인지적 요소와 타인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적 요소가 동시에 포함 된다(지소라, 2009). 공감능력의 인지적 요소에는 역할, 관점수용 능력이 포함되며, 타인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는 것을 말한다(우영혜, 2007). 공감능력의 정서적 요소는 다른 사람의 정서와 꼭 일치하지 않더라도 합치되는 정서의 대리적 경험, 즉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나 조건의 이해로부터 유발된 정서적 상태(박성희, 1996; Eisenberg & Strayer, 1987)를 뜻한다. 아동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나 양육자가 공감능력을 가지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아동에게 특히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부모도 공감능력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사용하며(Feshbach, 1987), 특히 Rubin(1984)은 본능이 아니라 공감능력이 어머니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에 있는 자녀에게 반응하도록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어머니 정체감의 특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집중하고 민감함을 유지하도록 도우며, 자녀에 대한 화를 줄인다(Dix, 1992). 또한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어머니로서의 자신감,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같은 변인들과 관련이 있으며 아동의 행동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Letourneau, 1981). 이와 같이 공감능력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바탕이며(Redmond, 1989) 대인관계 상의 갈등이 생겼을 때 완충역할을 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Gordon, 1970). 이를 통해 볼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에 대한 예측력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공감능력은 양육 시 어머니가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와 관련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감능력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공감능력의 관련성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한편, 상호지향적인 스트레스 이론에 의하면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 빈도보다는 사건을 지각한 강도가 부모의 심리적 상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mic & Greenberg, 1990). 즉, 어머니가 자녀를 얼마나 이해하며 공감하느냐에 따라 어머니가 양육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다룬 연구들은 그 개선

책의 하나로 ‘공감’이라는 요인을 포함하며, 공감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McCullough, Worthington, & Rachal, 1997). Gladstein(1983)은 공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동기화시키며 수집된 정보에 대한 행동적 반응을 하도록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Watson과 Clark(1984)은 개인이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면 상황의 부정적인 면에 주목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부정적 경향이 많은 어머니는 자녀를 더 까다롭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Levitt, Wever, & Clark, 1986). 이러한 연구는 어머니와 자녀 간의 같은 정도의 조화적합성을 가졌어도 어머니 자신의 특성, 즉 자녀를 이해하는 공감능력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같은 맥락으로 어머니가 비슷한 정도로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하여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조화적합도에 따라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결정요인으로 어머니와 자녀 간의 조화적합성과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이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와 자녀의 조화적합성 및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각각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과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일종의 중재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조화적합성과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각각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과 어머니의 공감능력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 및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과 어머니의 공감능력간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J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324명의 남녀 아동(남아 : 164, 여아 : 160)의 어머니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인 5학년 아동의 어머니로 선정한 것은, 이 시기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지만 아직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며, 동시에 점차 아동의 자기주장이 분명해지면서 어머니와 자녀사이의 갈등이 증가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문미영, 2001; 류지연, 2008)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질적 조화적합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유아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질 조화적합성은 아동이나 청소년기 부모와 자녀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기 때문이다(김정민, 1992).

본 연구대상자의 대략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

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각각 213명(65.7%)과 175명(5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인 36.1%, 500만원 이상이 2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161명(49.7%),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200명(61.7%)으로 가장 많았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 어머니의 공감능력,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어머니 자신의 시각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에 의해 평가되었다.

1)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 : (DOTS_R : (Windle & Lerner, 1986)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서주현과 이순형(2010)의 기질 척도를 실시하였다. 이 척도에는 자녀의 기질을 평가하는 문항과 자녀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를 알아보는 문항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 후,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점수에서 아동의 기질 점수를 뺀 점수의 절대 값을 구하였다(<그림 1>). 즉, 점수의 차이가 적을수

록 아동이 나타내는 기질과 어머니가 기대하는 기질의 정도의 차이가 적어서 조화적합성이 높고, 더욱 조화로운 것을 의미한다.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 : (DOTS_R : (Windle & Lerner, 1986)는 Thomas와 Chess(1977)의 뉴욕 장기종단 연구(NYLS)에서 발견된 기질 차원들을 기초로 하여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서주현과 이순형(2010)이 사용한 기질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적응적 기질요인(9문항), 활발한 기질요인(12문항), 그리고 규칙적 기질요인(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응적 기질요인은 다시 긍정적 기분 대 부정적 기분과 유연성 대 경직성, 접근성 대 철회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활발한 기질 요인에는 주의 집중과 주의 분산, 활동수준(일반과 수면)의 영역이 있으며, 규칙적 기질 요인은 섭식과 수면 습관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1>).

자녀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 : 맥락특유이론 (DOTS-R : ethnotheory)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서주현과 이순형(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아동의 기질에 관련되는 여러 맥락적인 요구, 즉 중요한 타인의 태도, 가치, 기대의 형태로 사회적 관계에서 아동에게 요구되는 바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척도의 구성은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의 문항과 동일한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대개 그렇지 않

<표 1> 기질의 요인별 속성

하위 영역	구성요인	속성
적응적 기질	유연성, 접근성, 긍정적 기분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이 높으며 철회하지 않고 접근성이 높고 기분이 긍정적이어서 적응력이 높은 속성
활발한 기질	활동수준, 주의분산, 주의집중	활동수준이 높고 주의분산정도가 높으며 주의집중이 낮은 활발한 속성
규칙적 기질	규칙성(수면, 식사, 일상습관)	수면, 식사, 일상습관이 모두 규칙적인 속성

아동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 아동의 기질 = 조화적합성

<그림 1> 조화적합성 측정

다(1점)에서 ‘대개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 방식 4점 평정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조화적합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0이었으며, 적응적 기질, 활발한 기질, 그리고 규칙적 기질의 신뢰도는 각각 .74, .70, 그리고 .64로 나타났다.

2)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Mehrabin과 Epstein(1972)의 정서공감 척도, Davis(1980)가 제작한 IRI검사, Bryant(1982)가 제작한 정서공감 척도를 번안, 재구성한 김현주(2007)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공감능력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하위요소는 인지공감(15문항)과 정서공감(15문항)으로 나누어지며 인지공감은 다시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로, 정서공감은 타자 지향적 공감적 각성과 개인적 고통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인지공감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편이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능한 한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정서공감은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괜히 눈물이 난다’, ‘다른 사람이 웃는 것을 보면 내 마음도 즐거워진다’ 등이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방식 5점 평정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감능력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인지공감의 신뢰도는 .68, 정서공감의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3)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을 번안 수정한 김민정(2008)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36문항으로 ‘부모의 고통(12문항)’,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12문항)’,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12문항)’, 등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부모의 고통은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포기 한다’,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때때로 우리 아이는 나를 짓궂게 괴롭히려는 일들을 한다’,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은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내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등이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는 Likert 방식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93이었으며, 부모의 고통 .83,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88, 그리고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은 .90으로 나타났다.

3. 조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조사는 2010년 4월에 서울시 N구에 위치한 J 초등학교 5학년 교사들의 도움으로 실시되었다. 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각 교사들은 아동을 통해 어머니용 질문지를 배부·실시한 다음 일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

하여 총 340부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 : 97.1%) 이 중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이중으로 응답한 16부를 제외하고, 총 324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각각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과 공감능력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고, 단순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

하였다(<표 2>).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조화적합성 가운데 적응적 기질은 활발한 기질, 규칙적 기질(각각 $r = .31, p < .01$; $r = .40, p < .01$)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운데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각각 $r = .12, p < .05$; $r = .24, p < .01$; $r = .20, p < .01$)과도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조화적합성 가운데 활발한 기질은 규칙적 기질($r = .28, p < .01$)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운데 역기능적 상호작용,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각각 $r = .15, p < .01$; $r = .19, p < .01$)과도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조화적합성 가운데 규칙적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서 역기능적 상호작용,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각각 $r = .12, p < .05$; $r = .14, p < .01$)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조화적합성의 하위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보였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와 자녀가 나타내는 기질특성의 차이가 클수록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공감능력 가운데 인지적 공감능력은 정서적 공감능력($r = .45, p < .01$)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

<표 2>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 = 324)

변인	1	2	3	4	5	6	7	8
1. 조화적합성(적응적기질)	-							
2. 조화적합성(활발한기질)	.31**	-						
3. 조화적합성(규칙적기질)	.40**	.28**	-					
4. 인지공감	.04	.01	-.01	-				
5. 정서공감	.09	.08	.05	.45**	-			
6. 부모의 고통	.12*	.10	.03	-.03	.03	-		
7. 역기능적 상호작용	.24**	.15**	.12*	-.11*	-.14*	.51**	-	
8.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20**	.19**	.14**	-.06	-.03	.42**	.69**	-
<i>M(SD)</i>	.50(.40)	.62(.35)	.40(.32)	2.81(.27)	3.05(.32)	1.77(.42)	1.86(.49)	2.93(.25)

* $p < .05$. ** $p < .01$.

트레스 가운데 역기능적 상호작용($r = -.11, p < .05$)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운데 역기능적 상호작용($r = -.14, p < .05$)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공감능력의 하위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있었고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클수록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괴롭힘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역기능적인 상호작용과 같은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 간에도 상관관계가 나타나 부모의 고통은 역기능적 상호작용,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각각 $r = .51, p < .01; r = .42, p < .01$)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r = .69, p < .01$)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 외의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조화적합성과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조화적합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양육스트레스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조화적합성 가운데 적응적 기질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 가운데 역기능적 상호작용에만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어($\beta = .20, p < .01$), 어머니가 자녀에게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기분이 긍정적이기를 기대하는 정도와 자녀가 나타내는 기질특성의 차이가 클수록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여기는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조화적합성 가운데 적응적 기질과 활발한 기질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 가운데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각각 $\beta = .14, p < .05; \beta = .08, p < .05$)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기분이 긍정적이기를, 그리고 주의집중하고 산만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정도와 자녀가 나타내는 기질특성의 차이가 클수록 자녀를 까다롭다고 여기며 힘들어 하는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화적합성의 하위요인 가운데 규칙적 기질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적응적 기질이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력은 6%로 나타났으며, 적응적 기질과 활발한

<표 3> 양육스트레스(역기능적 상호작용/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에 대한 조화적합성(적응적 기질/활발한 기질/규칙적 기질)의 회귀분석 (N = 324)

독립변인	역기능적 상호작용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B	β	B	β
조화적합성(적응적기질)	.22	.20****	.17	.14*
조화적합성(활발한기질)	.10	.08	.19	.08*
조화적합성(규칙적기질)	.01	.01	.07	.05
R^2	.06		.06	
F	6.73****		6.75****	

* $p < .05$. **** $p < .001$.

기질의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에 대한 설명력은 6%로 나타났다.

3. 공감능력과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공감능력의 두 가지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양육스트레스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인지공감과 정서공감 모두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역기능적 상호작용에만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나타내었다(각각 $\beta = -.11, p < .05$; $\beta = -.14, p < .05$). 즉, 자녀의 입장과 생각이나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인지적 공감과 자녀의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여 유사한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적 공감이 클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괴롭힘을 경험하고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에,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인 활발한 기질과 규칙적 기질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0.1 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력은 4%였다.

<표 4> 양육스트레스(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대한 공감능력(인지공감/정서공감)의 회귀분석 (N =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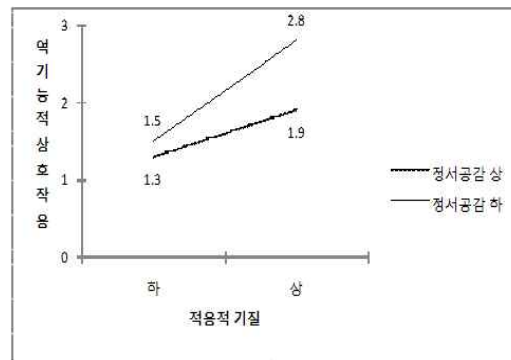
독립변인	역기능적 상호작용	
	B	β
인지공감	-.18	-.11*
정서공감	-.18	-.14*
R^2	.04	
F	7.11*	

* $p < .05$.

4.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조화적합성과 공감능력간의 상호작용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과 어머니의 공감능력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양육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앞선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조화적합성의 적응적 기질과 활발한 기질을 1단계로 각각 투입하고,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을 2단계로 각각 투입하였으며 적응적 기질과 인지공감 및 적응적 기질과 정서공감, 활발한 기질과 인지공감 및 활발한 기질과 정서공감간 상호작용 변수를 각각 3단계로 투입하였다(<표 5>). 그 결과 조화적합성의 적응적 기질과 정서공감간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beta = -1.19, p < .05$)가 나타났다. 즉, 조화적합성의 적응적 기질을 1단계에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이 6%였던 것이 2, 3단계로 진행하면서 8%에서 9%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변인들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대한 조화적합성의 적응적 기질과 정서공감



<그림 2> 양육스트레스(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대한 조화적합성(적응적 기질)과 공감능력(정서공감)간의 상호작용

<표 5> 양육스트레스(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대한 조화적합성(적응적 기질)과 공감능력(정서공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N = 324)

독립변인	역기능적 상호작용		
	1단계	2단계	3단계
조화적합성(적응적기질)(A)	.24***	.24***	-.91*
공감능력(정서공감)(B)		-.16**	-.33***
(A) × (B)			1.19*
<i>F</i>	18.85***	13.87***	11.33***
<i>R</i> ²	.06	.08	.10

p* < .05. *p* < .01. ****p* < .001.

감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을 평균 이상 집단과 평균 미만 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4개 집단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림 2>에 의하면, 정서공감이 낮은 어머니들의 경우, 조화적합성 가운데 적응적 기질이 높을 때 즉, 어머니가 기대하는 적응적인 기질과 아동이 나타내는 기질의 차이가 클 때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높고, 어머니가 기대하는 적응적인 기질과 아동이 나타내는 기질의 차이가 적을 때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낮게 나타났다($t = 4.01, p < .001$). 반면에, 정서공감이 높은 어머니들의 경우, 조화적합성의 적응적 기질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낮은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보였다($t = .59, p > .05$). 다시 말해, 어머니가 기대하는 적응적인 기질과 아동이 나타내는 기질의 차이가 큰, 조화적합성이 좋지 않은 어머니 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정서공감능력이 낮은 어머니는 정서공감능력이 높은 어머니에 비해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높았으나($t = -3.52, p < .001$), 조화적합성이 좋은 어머니 집단은 어머니의 정서공감능력 정도에 관계없이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낮았다($t = -.62, p > .05$).

IV.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과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각각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 및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응적 기질, 활발한 기질 및 규칙적 기질 등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 가운데 적응적 기질이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유연성과 접근성이 높고 기분이 긍정적인 적응적 기질을 기대하지만 아동이 이러한 기질특성을 적게 나타내어 조화적합성이 좋지 않을 때 자녀와의 관계에서 괴롭힘을 경험한다고 여기는 양육스트레스와 자녀를 까다롭다고 지각하여 힘겨워하는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집중력이 높고 산만함이 덜하기 기대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적게 나타낼 때, 자녀를 까다롭다고 지각하는 양육스트레

스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의 기질적 조화적합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드문 편이나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부모의 스트레스 지각에 중요하다고 한 연구들(고성혜, 1994; Levitt, Wever, & Clark, 1986)이나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이 조화로울수록 어머니가 아동에게 애정적 태도를 보이며 부모-자녀간 기질이 조화를 이룰 때 보다 만족스러운 부모자녀 관계를 이룬다고 한 연구(Buss & Plomin, 1984)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모와 아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양방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여부가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아동의 기질발달이 가장 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요인이 개인과 환경과의 적합한 조화임(Chess & Thomas, 1999)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아동의 기질을 이해하고 맞추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공감능력의 두 가지 하위요인인 인지공감 및 정서공감 요인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각각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 아동의 관점이나 역할을 수용하고 아동의 생각을 존중해 주거나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며 같이 유사하게 느낄수록,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 상의 스트레스의 해로운 결과를 줄여준다(Letourneau, 1981)는 연구나, 어머니가 양육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어머니가 자녀를 얼마나 이해하며 공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nic & Greenberg, 1990)는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기분변화가 심하며 쉽게 불안해지거나 우울하고 지나치게 근심걱정을 하는 성향을 가진 어머니는 긍정

적인 정서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껴, 자녀의 실수나 잘못 등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결과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유희정, 1987)는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집중하고 민감함을 유지하도록 도우며(Dix, 1992), 자녀에 대한 화를 줄이고, 어머니로서의 자신감을 증진시키며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Lurneau, 1981)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공감능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공감능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다음으로,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공감력은 상호작용하여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다. 정서공감력이 낮은 어머니 집단에서만 적응적 기질에 대한 조화적합성이 좋지 않은 경우, 즉 어머니의 기대와 아동이 나타내는 적응적 기질 차이가 클 경우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높았으며, 정서공감력이 높은 집단은 적응적 기질 차이 정도에 관계없이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다. 부모와 자녀의 기질적 조화적합성과 공감능력의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자녀 간의 같은 조화적합성을 가졌어도 어머니 자신의 특성, 즉 자녀를 이해하여 수용하는 공감능력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어머니의 성격 특성에 따라서 같은 기질의 유아일지라도 자녀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양육방식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연구(진순옥, 2003)나 어머니가 양육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어머니 자신의 정의적, 인지적 특성에 의해 주관적으로 지각된다

는 보고(Crnic & Greenberg, 1990), 그리고 개인이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면 상황의 부정적인 면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아 어머니가 자녀를 더 까다롭다고 지각한다는 보고(Levitt, Wever, & Clark, 1986)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같은 기질의 아동을 자녀로 두었더라도 어머니 자신의 특성, 즉 자녀의 기질성향에 대한 이해와 자녀의 정서를 유사하게 경험하는 공감능력 정도에 따라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화적합성의 적응적 기질과 인지공감 그리고 활발한 기질과 인지 및 정서공감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하며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서 용서를 하도록 유도하는 변인이며 (McCullough et al., 1997), 부모-자녀간 갈등 개선책의 하나로 주목되고 있고(이지선, 2009),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자녀를 얼마나 이해하며 공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Crnic & Greenberg, 1990)와 다른 결과이다. 이것은 공감능력의 척도가 일상적인 양육에서 나타나는 공감변인을 다루지 않고 일반적 상황에서의 공감능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타당도 높은 척도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바와 자녀가 실제로 나타내는 기질 차이에서 오는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감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기질 특성자체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깊다는 기존의 연구들에 더하여 아동의 기질 특성과 이에 대한 어머

니의 기대에 의해 나타나는 조화적합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은 변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기질적 조화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감능력은 후천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능력임을 감안할 때 자녀의 타고난 기질성향의 이해와 수용을 내용으로 한 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제한점에 근거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후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다른 발달연령의 어머니들과 자녀들 간의 조화적합성과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는 데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유아기를 포함한 학령전기 등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여 연령에 따라 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이 양육스트레스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질의 조화적합성과 관련된 연구(Ahn, 2005; Bae, 2004; Moon, 2004)에서는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 조화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중에서 아동의 특성 일부만을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아동의 특성 이외에도 부모의 특성, 가족의 특성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척도를 통해 종합적인 특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어머니와 자녀의 기질 조화적합성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자녀의 연령을 유아기로 제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어머

니들을 대상으로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적합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는 자녀가 유아기 뿐 아니라 학령기 후기에도 양육자와 아동 간 조화적합성의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로서, 학령기 어머니들에게도 자녀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의 기대와 자녀가 나타내는 기질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공감능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의 해소 요인의 하나로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를 통해 정서공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은 덜 하지만 인지공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기대와 자녀가 나타내는 표출행동 간의 차이가 커서 조화적합성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에 공감능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올바른 양육행동을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김미숙·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김민정(2008). 공격적 유아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 사회적 기술 훈련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현주(2009).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류지연(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이 정서지능이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미영(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성연·전춘애·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박성희(1996). **공감과 친사회행동**. 서울 : 문음사.

박용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16(1), 113-131.

박혜원(2002). 공감훈련이 여중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주현·이순형(200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조화적합성이 유동성 지능 및 결정성 지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9(4), 47-71.

송주미(1992).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와 부모의 자녀 행동지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우영혜(2007). 아동이 지각한 의사소통과 공감능력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희정(1987). 노인의 성격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임상**, 6(1), 1-8.

정문자·신숙재(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정향미·안민순(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모이기질부조화와의 관계. **아동간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7(6).

지소라(2009).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진숙옥(200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세영 · 박성연(1994).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 Ahn, M. S. (2005). Effects of a maternal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temperamental goodness-of-fit between mother and chil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1044-1053.
- Abidin, R. R.(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Psychology*, 19(4), 298-301.
- Bae, K. S. (2004). Infant's temperament and self-esteem : Test of a "goodness-of-fit" mod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Belsky, J., & Pensky, E. (1990).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 : toward and emergent family system. In R. A. Hinde & J. Steven-Hinda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 Oxford, 193-217.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 Hillsdale, NJ : Erlbaum.
- Chess, S., & Thomas, A. (1999). *Goodness of fit : Clinical application from infancy through adult life*. Philadelphia, PA : Brunner/mazed.
- Crnicek,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avis, M. H. (1980). A multimediat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eater-Deckard, K. (2005).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Development :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11-115.
- Dix, T. (1992). Parenting on behalf of the child : Emotional goals in the regulation of responsive parenting.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si, & J. J. Goodnow (Eds.), *Parental belief systems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2nd ed.)(pp. 319-346).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umas, J. E., & Lafreniere, P. J. (1993).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 of support or stress :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d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64, 1732-1754.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Empathy and developmen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vans, G. W., Boxhill, L., & Pinkava, M. (2008). Poverty and Maternal Responsiveness : The Role of Maternal Stress and Social Resourc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2(3), 232-237.
- Eysenck, H. J. (1981). *A model for personality*. Berlin : Springer-Verlag.
- Feshbach, N. D. (1987). Parental empathy and child adjustment/maladjust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271-291).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ladstein, G. A. (1983). Understanding empathy : Integrating Counseling developmental and social-psychology perspectiv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406-482.
- Gordon, M. (2003). Roots of empathy : Responsive parenting, caring societies. *Keio Journal of medicine*, 52, 236-243.
- Huth-Bocks, A. C., & Hughes, H. M. (2008).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amilies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4), 243-251.
- Lerner, J. V. (1983). The role of temperament in psychological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ts : A test of a goodness of fit model. *Journal of*

- Genetic Psychology, 44*, 143-155.
- Letourneau, C. (1981). Empathy and stress : How they affect parental aggression. *Social Work, 26*, 383-389.
- Levitt, M. J., Weber, R. A., & Clark, M. C. (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10-316.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Jr., & Rachal, K. C. (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321-336.
- Moon, C. N. (2004). The relation between mother-child goodness-of-fi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Paterson, G., & Sanson, A. (1999). The association of behavioral adjustment to temperament, parenting and family characteristics among 5-year old children. *Social Development, 8*(3), 293-309.
- Redmond, M. V. (1989). The function of empathy (decentering) in human relations. *Human Relations, 42*, 593-605.
- Rubin, R. (1984). Maternal identity and the maternal experience. New York : Springer.
- Sanson, A. V., & Rothbart, M. K. (1996).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 : Applied and practical parenting* (pp. 299-321). NY : Erlbaum.
- Slack K. S., Holl, J. L., McDaniel, M., Yoo, J., & Bolger, K. (2004). Understanding the Risks of Child Neglect : An Exploration of Poverty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Child Maltreat, 9*(4), 395-408.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 Brunner/mazel.
- Watson, D., & Clark, L. A. (1984). Negative affectivity :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96*, 456-490.
- Windle, M., & Lerner, R. M. (1986). Reassessing the dimension of temperament individuality across the life span : The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213-230.

2010년 6월 30일 투고, 2010년 8월 28일 수정
2010년 9월 10일 채택